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새로운 항존직분자를 세우는 신임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018년을 준비하는 '제직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제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후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미리 광고한 것처럼 전도대상자 작정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은 12월 둘째 주일에 가집니다.
5. 12월 월삭새벽기도회는 12월 1일(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가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은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장이신 김세광 교수님이 오셔서 전하십니다.
7.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유중열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오효근 집사님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이영선 집사	김경미 집사	성탄축하예배
주일식사담당	김민자 집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 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2/2)	주사랑목장(12/9)	에덴목장(12/16)	갈렙목장(12/23)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12월 둘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 영 진
Pastor Young Jin Hur

SUNDAY A.M WORSHIP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 배 로 부 름		인 도 자
*성 시 교 독	교독문 106번(감사절 2)	다 같 이
*경 배 찬 송	35장(통 50장)	다 같 이
*참 회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02장(통 408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왕하 19:1-8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씀 선 포	'위로하시는하나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다 같 이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편 3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SUNDAY P.M WORSHIP 주일 오후예배

목장주일로 인해 오후예배는 없습니다.

'제직회 세미나'로 모입니다.

강사 : 김지환 목사 (춘천 호산나 교회 담임)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1-3 '그 후에 예수께서'	허 영 진 목사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마 6:5-8 '과녁을 향한 기도'	허 영 진 목사
새 벽 기 도 회 (월~금)	새벽 5:30 시 편 묵상 시 57:1-11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허 영 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PASTOR'S COLUMN 목회자 칼럼

'기본만 해주세요'

바람이 쌀쌀했다. "그래, 오늘은 미뤄두었던 차량검사나 받자." 교회 스타렉스가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지인을 통해 평소 단골로 거래하던 자동차 공업사로 향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탓인지 달리는 차창 밖의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자라목마냥 잔뜩 목을 움츠린 채 인도를 걸어가는 이들 몇몇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점검받거나 수리해야 할 수많은 차량들 틈새로 간신히 주차하고서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적한 오후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무실 안은 고객들로 넘쳐났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필 그날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게 줄이 늘어서 있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아쉽지만 부득이 멀지 않은 거리의 다른 자동차 공업사로 향했다. 처음 찾은 곳이지만, 앞서 찾았던 곳보다는 확실히 덜 붐볐다. 사무실을 찾아 접수하고서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기사가 다급히 불렀다. 차량의 머플러가 부식되어 떨어져 있으니 교체 후에 차량검사가 가능하단다. 마치 타박을 하듯이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 머플러가 재고가 없기에 주문하고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퉁명스런 대답이 돌아왔다. 고객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뭐가 그리 바쁜지, 자기 할 말만하고 돌아서 가버리는 그의 태도에 몹시도 서운하고 불편했다.

상한 마음도 그렇지만,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럴 바에야 원래 거래했던 공업사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다시 차를 되돌렸다. 그제야 그 기사 황급히 뛰쳐나와 붙잡는다. 어차피 당일에는 고칠 수 없으니 다음 날 고치러 오든지 하겠다고 하고선 차를 몰고 나왔다. 공손한 태도는 애당초 바라지도 않았지만, 기본만 대해 주었더라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채 도심에 산다. 그래서일까? 삭막한 감정이 도사린 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가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착각한다. 형식만 빌린 채 관계의 본질은 눈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말하고 싶다. "기사님, 기본만 해주세요."

Written by 허영진